

# “여름 성수기 잡아라”... 카드사 ‘공항 라운지’ 혜택 다채

삼성 ‘스카이패스’ 연 2회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글로벌 연 10회 무료, 리무진 혜택 현대 ‘씨밋’ 세계 1000곳 무료이용



해외 여행이 늘면서 공항 라운지 신용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뉴시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단순 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넘어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까지 고객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그릴라가 집계한 공항 라운지 카드 상위 10개 순위를 살펴보면 기업형 카드사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삼성카드 ‘삼성카드&마일리지 플래티넘(이하 스카이패스)’ 카드가 1위를 차지했다.

삼성 스카이패스 카드는 연 2회 인천공항 마티나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기준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 가능하다. 단, 발급 월을 포함해 최초 2개월은 이용금액 관계없이 라운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위는 ‘현대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카드 에디션2’다. 전월 이용금액 조건 충족 시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연 1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항 리무진·철도 티켓도 연 12회 무료로 제공한다.

3·4위는 삼성카드 ‘디아이드 퍼스트’, 현대카드 ‘현대카드 씨밋’이다. 디아이드

퍼스트는 연 3회 본인 및 동반인을 포함해 국내외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씨밋은 전 세계 10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대상으로 연 5회 무료 이용 혜택을 지급한다.

5위는 ‘삼성카드 아이디 글로벌 카드’로 집계됐다. 역시 본인 한정 국내외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이 연 2회 무료로 제공된다. 6위는 현대카드의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 에디션2’다. 전월 이용금액 조건 충족 시 공항 라운지를 횡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순위에는 우리카드 ‘우리카드 마일&포인트’, NH농협카드 ‘올바른 플렉스카드’, 현대카드 ‘대한항공 300’, 하나카드 ‘제이드 클래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카드사들은 카드 매수를 넓히는 반면 기업형 카드사들은 프리미엄 혜택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형 카드를 중심으로 휴가철과 맞물려 항공사 제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 혜택이 집중되는 측면

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항 라운지 이용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조사업체인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올해 세계 공항 라운지 시장을 63억9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프리미엄 여행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공항 라운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 상위층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행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한 공항 이용객은 “공항 라운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옛날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가철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공항라운지 이용권 거래가 꽤 빈번하게 올라 온다”고 말했다.

/안재진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6%대 고금리로 ‘눈덩이 신용대출’ 막는다

5대 은행 신용대출 보름새 1조 증가 주담대 금리도 최대 7.32% ‘상승세’



증시활황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뉴시스

증시 활황속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보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났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등 자율규제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445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조3536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2조1741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달 들어서도 보름 새 잔액이 급증하며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8월(104조4171억원)이후 최대치다.

문제는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금리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4월 초 3.182%에서 지난 17일 3.572%로 0.39%포인트(p) 상승했다.

여기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신용대출 금리는 4.16~6.47%로 일주일 전보다 금리 하단은 0.23%p 내렸지만 금리 상단은 0.39%포인트 올랐다.

주담대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

출 금리 상단은 4.57~7.32%로 집계됐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 주담대 금리 상단은 8%, 신용대출 금리는 7%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조이기 위해 한도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일반대출의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 중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는 만기 연장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에 더해 은행권의 한도 축소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승세에 따라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동탄 ‘셔세권’ 주간 아파트값 2%대 급등

매매지수 0.10%, 전세지수 0.11% ↑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도체 호황에 경기 화성시 동탄의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규제 지정 회피와 교통 호재가 맞물리며 한 주간에만 2%가 넘게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10%,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은 전주에 이어 동탄이다.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22% 급등했다. 동탄은 6월 첫째주 0.60%를 기록한 데 이어 둘째주 1.98%로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으며, 셋째주는 2%대를 웃돌았다.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서세권으로 꼽히는 용인 수지(9.03%)와 성남 분당(7.40%), 용인 기흥(5.99%), 수원 영통(5.72%) 등도 올해 집값이 크게 뛰었다.

수도권 전세로는 0.20% 올랐다.

서울은 전주와 같이 0.27%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북구(0.40%)는 중앙·길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38%)는 창·방학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에서는 강남구(0.31%)는 압구정·역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잠실·방이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관광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역세권 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 연준의 무게중심 인하→동결·인상 전환

▶▶ 1면 ‘美 기준금리 동결...’서 계속

핵심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연준 내부의 정책 무게중심이 인하에서 동결 장기화 또는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성장률을 낮추면서도 물가와 금리 경로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은 연준이 경기 둔화보다 물가 재상승 위험을 더 큰 정책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의 첫 FOMC 라는 점도 시장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책결정문에서는 향후 정책 경로를 시사하는 포워드 가이드 문구가 삭제됐고, 워시 의장은 본인의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점도표를 포함한 연준의 소통 방식 전반도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시장은 연준의 명시적 안내보다 물가와 고용 등 실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도 긴축 압박권

국제금융시장은 이번 FOMC를 매파적

으로 받아들였다. 한은 시장상황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이란 종전 기대감이 이어졌음에도 미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큰 폭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미국 채 2년물 금리는 13bp 오른 4.18%, 10년 물은 5bp 오른 4.49%를 기록했다. 달러화 지수는 0.9% 오른 100.39를 나타냈고, S&P500은 1.2% 하락했다.

한은은 이번 FOMC를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신호로 해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통화정책에도 부담이 커졌다. 한은은 이미 지난 5월 금통위의 시로에서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 국토부, AI로 중개 담합·전세사기 잡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 수립

지털 기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정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 개발, 공급, 거래, 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사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오픈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오픈 API는 민간 기업이나 개발자가 플랫폼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에 연동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창구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업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따져 우수 업체를 선별하는 ‘선정제’로 바뀐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전통 부동산서비스업종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 정보의 객관성도 높일 방침이다.

/성재리 인턴기자 cr56@

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경기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토부는 디